

<2013.12.21.~2013.12.24.>

전라일보

항만청, 부안·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서

멸종위기 '대추귀 고둥' 다량 발견

부안·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멸종위기 생물종인 '대추귀 고둥' 서식지가 발견됐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은 부안·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던 중 환경부지정 II급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대추귀 고둥'의 다량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의 최상부의 습지에 서식하는 육상 패류인 대추귀 고둥은 전남의 영광, 강진, 보성과 경남의 남해, 사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간척지의 개발과 환경변화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용역을 맡은 김형섭 군산대해양생물공학과 교



수는 "멸종위기동물인 대추귀 고둥이 부안·고창 지역에서도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 갯벌의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고 청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또 갯벌 습지 보호지역인 곰소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원전 방지능과 관련해 위축된 지역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강경창기자·kang@

/편집=김미선기자·misunnig@

고창갯벌에 멸종위기 '대추귀 고둥' 대량 서식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12-21 10:15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고창과 부안 일대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대추귀 고둥의 대량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추귀 고둥은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의 최상부 습지에 서식하는 높이 25mm, 폭 12mm 내외의 긴 계란형 육상 패류이다.

서식 조건이 까다롭고 최근 해안가 개발로 개체 수가 급감해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김형섭 교수는 "대추귀 고둥이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 갯벌의 해양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 연합뉴스 앱 ▶ 인터랙티브뉴스 ▶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662209>

인쇄하기 취소






회원가입 : 마이영글 : 인트라넷 : 로그인

[홈](#)
[이달의 보도사진](#)
[한국보도사진전](#)
[사진기자 갤러리](#)
[테마포토](#)
[네티즌 갤러리](#)
[사진제보](#)
[포토뉴스](#)
[전체사진보기](#)



[전체보기](#) |
 [정치](#) |
 [경제](#) |
 [사회](#) |
 [생활/문화](#) |
 [세계](#) |
 [IT/과학](#) |
 [연예](#) |
 [스포츠](#) |
 [종합](#)



[사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사진] 붉은 노을 수놓은 가창오리 에어쇼



[편집자 주] 한국사진기자협회(KPPA)는 매월 발표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수상한 보도사진 작품을 포함해 2013년에 출품된 사진 중에서 '올해의 사진' 100편을 선정해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한다.

제목: 붉은 노을 수놓은 가창오리 에어쇼(제122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nature 부문 최우수상)

사진설명: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고창 동림지에서 날갯짓을 시작으로 떼 지어 창공을 향해 솟구친 가운데 붉은 하늘을 비상하는 황홀한 군무가 호수에 반영되는 순간 기적을 만들었다. 사진기자 임정옥 / 촬영일-2013.02.02

작성일시 : 2013-12-20 13:40:35

역대 올림픽 화보집

소양강다목적댐 준공 40주년 기념 사진전

기간 10/15 ~ 10/30

장소 소양강다목적댐 정상

25점 미리보기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명품 생태도시' 날개

이강수 고창군수는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11년간 군민에게 미래 희망의 밝은 웃음을 주기 위해 “안정된 일자리 7천개 창출, 관광객 1천만명 시대 돌파, 인구 7만명 달성”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 관광,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 7대 비전전략을 수립 매진한 결과 2013년 현재 일자리 1만1천개, 관광객 877만2천명, 귀농귀촌인 5600여명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

부에서 최근 실시한 지자체 투자유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군 단위 1위, 시군 통합 3위로 선정되어 이목이 집중됐으며, 특히 창조적 마인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관농업을 성공시킨 청보리밭축제, 귀농귀촌1번지, 브랜드농산물 등 최고·1등 타이틀을 다수 확보, 지방3.0시대를 맞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북중앙신문



▲명품 생태도시 조성

고창군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
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
획(MAB) 국제조정사회에서 생물권보전
지역(BR)으로 지정됐습니다. BR로 지
정됨에 따라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
워크에 참여하여 고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최대 밀집지역으로서 지
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유적지와 2011년 랍사르습지
로 등록된 후 생태 탐방로가 마련된
운곡습지,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갯
벌,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주요 핵심지역을 연결하여 문화
및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입
니다. 아울러 BR로고를 제작, 지역
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에 부착하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 고추,
고구마, 땅콩, 토마토, 바지락 등
판매 증대를 통한 주민 수익 창출
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발
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주변 개발 박차

고창군은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618억)
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
시포 항 이용고도화사업(494억), 해
양수산부의 구시포 해수욕장 연안정
비사업(164억)을 추진하여 구시포
권역 해양관광단의 체계적인 개발로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교두보를 형성함은 물론
호남권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고창갯벌을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
정함에 따라 해리·심원면 일원(870.955
㎢)에 관광객들의 안전한 갯벌 탐방
과 생태계 보

국내최초 고창지역 전체지정 국제적 위상 올리고 경제 견인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추진 귀농 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

전을 위해 탐방로, 진입도로,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2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명실상
부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합
시다.

▲석정온천관광지 개발

150만㎡ 규모로 민자 3,039억원이 투
자되는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웰파
크시티"는 건강·휴양·레저·온천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국내 최초
의 자연치유형 리조트로서 2011년
8월 개장한 골프장(18홀)과 석정
힐스, 힐링카운티, 온천 휴스파 등
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천휴양병원, 노인복지주
택, 명품 아울렛 등 다양한 시설이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고창MTB파
크는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올 7월 착공했으며, 자전거전용코
스 총길이 15km에 10개 코스로 초·
중·상급으로 구분하여 개인별 수
준에 맞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
니다. 다양하게 설치된 점프대, 드
래프, 웨이브 데크 등은 아시아권
내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짜릿
함과 스릴로 라이더를 중독시키
기에 충분한 만큼, 많은 동호인
들이 고창을 찾아 지역경제 활
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으뜸 귀농귀촌 1번지

지난 10월 "2013 대한민국 귀농
귀촌창업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귀농귀촌
인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지로
고창군이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11년 494가
구 1,298명, 2012년 787가
구 1,465명, 2013년 11월
말 961가구 1,688명 등 2007
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도
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총 5,548명이 정착하여
고창군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2년 7월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 사업에 "Family 5563
정착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국비 10억4400만원을 지원받
아 폐교된 신왕초등학교(공음면
신대리)를 활용 2015년까지 3
년간 이튼과 실습교육을 병행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귀
농귀촌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고, 금년 3월에는 농식품부
'2013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34개
자치단체 평가 결과 고창군이
1위로 확정됨에 따라 6억원
(국50%, 도10%, 군40%)의
사업비를 3년간(2013~2015)
지원 받고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활동, 수도권 귀농예정자
교차반 교육 등 8개 세부사업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조성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는 총 7개
사업에 715억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관련산업을 집적화
시켜 식품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

는 군 전략산업으로서 2009년
관광발단지, 2011년 복분자
자연구, 2012년 황도테마
육성사업과 국민여가 캠핑
장이 완공됐으며, 복분자
농공단지는 2013년, 테
마파크 조성사업은 2014
년까지 완공할 계획입
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
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는
복분자 체험시설과 연
계하여 전시·홍보·체
험을 위한 공간으로 마
련하고 있습니다.

▲4대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 특성을 살려 농촌다
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
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
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4대 권역(반암권
역·질마재권역·강선
달권역·무장읍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을 2008년부터 시작하
여 2015년까지 추진합
니다.

반암권역은 금년 말
완료로 목표 소득사
업 진행, 질마재권역
은 2012년 1단계 완
료 후 2단계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강
선달권역은 마을회
관 리모델링 및 소
속사업 등 1단계사
업 마무리 중입
니다.

무장읍성권역은
금년 말 완료로
목표로 현재 거
점면문화센터,
가로경관개선사
업 등 추진 중입
니다.

아울러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총사업비
300억(국지방비
100억, 민자 200
억)을 투입하여
상하면 용정리강
선달저수지 일
원에 2014년까
지 도시와 차별
화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
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사
업승인되어 금
년 3월 착공, 현
재 내부단지 토
목공사 중입
니다. /고창=김준원기자